

우리들은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Hero를 갖고 산다. 우리들의 Hero는 대부분 어느 방면에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언제나 최고를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이 Hero가 되기전까지 우리들은 앞서가는 것을 무시한다. 그들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도 모른채 말이다.

Free style

이번주 주제
채팅

◇Free style은 이론화를 지향하기보다 감성으로서 깨어진 대학문화를 맞춰 나가려는 기획 테마신문입니다.
◇Free style의 격주 게재되는 인물포커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2

1997년 10월 13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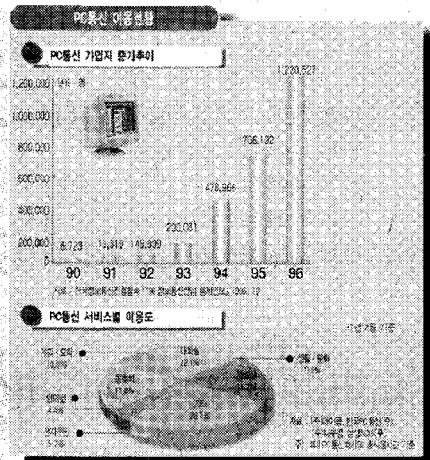
테마신문

대학주보

Cha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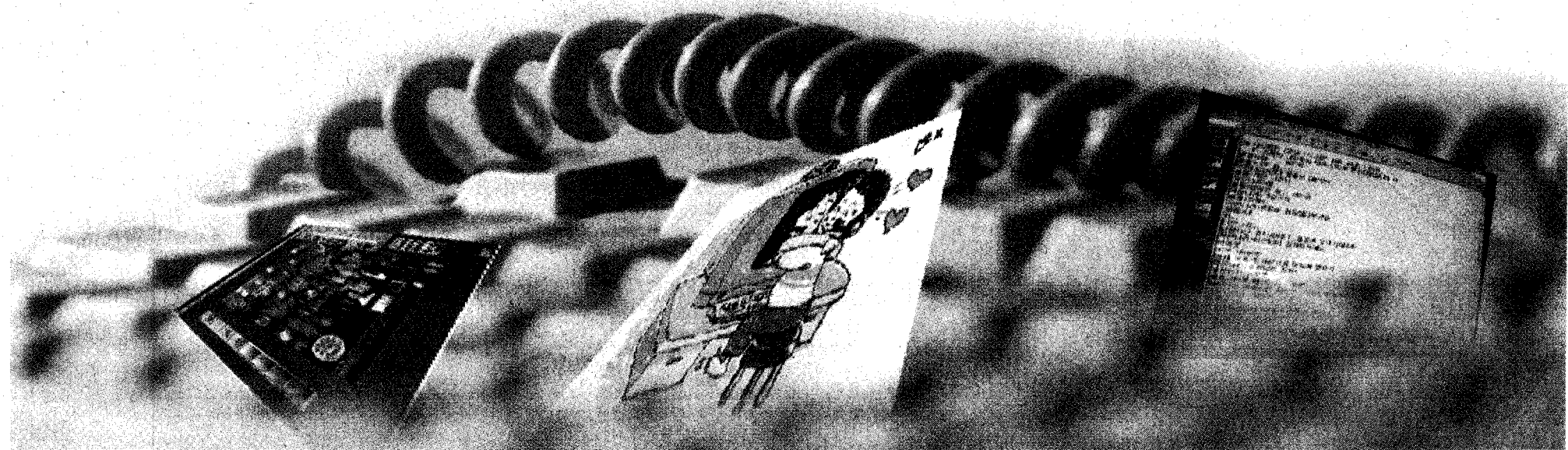
PC통신 서비스의 하나로 통신회선을 통해 연결된 두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한 쪽에서 타자한 내용이 다른 쪽 컴퓨터의 화면에 그대로 표시된다. 이미 우리의 일상속에 자리하고 있는 채팅은 네티즌들에게 세상과 사람을 만나고 체험하는 유용한 장소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접속'이라는 영화가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채팅은 곧 네티즌은 물론 평소 관심 밖이던 사람까지 통신공간으로 불러모으고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채팅은 몇몇이 얘기하듯 쓸데없는 잡담에서부터 재택수업이나 온라인 전자회의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다양하다. 또한 이제까지 텍스트를 위주로 하던 채팅이 대부분이었는데 비해 음성, 동화상,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영상채팅이 도입되고 있어 채팅에서 가장 비판을 받던 익명성의 폐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 있다.

PC통신이그후이



PC통신 이용자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통신인구의 수는 매년 100%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올해 말에는 유료 이용자 기준으로 3백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유료 ID에 두, 세명의 이용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5백만명의 PC통신 이용인구를 추산할 수 있어 통신이 갖는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해 해준다. 또한 통신 이용 행태를 볼 때 대화방이나 게시판 이용률이 가장 높아 PC통신은 채팅이라는 형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물라의 표절시비가 통신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 인기절정의 한 댄스그룹을 도중하차시킨 점은 그 잠재력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통신의 힘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PC통신을 대표하는 네티즌들의 책임감과 권리행사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Welcome To My Chat Space



채팅, 그 안에서 자유를 꿈꿔라

접속에서 전도연을 가리키는 '여인2'는 지금 채팅방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화명이다. 현실공간에서 이루지 못하는 사랑을 통신공간에서나마 이루려는 채팅족들의 손놀림은 오늘날 부지런히 키보드 위를 춤춘다



감 감한 밤. 어둠이 짙게 깔릴쯤 정적을 깨는 타자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충혈된 눈은 화면을 따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인다. 무엇을 하는 것일까. 컴퓨터를 이용해 채팅을 하는 이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집중한다. 채팅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일은 늘 즐겁다. 보통 채팅을 하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이때 채팅방은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기에 PC메니아들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가 보편화된 것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쉽게 집에 개인용 컴퓨터 한대쯤은 보유했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 하나로 무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신을 사용한다. 통신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직접 은행이나 쇼핑을 가지 않아도 컴퓨터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그 많은 정보중에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채팅이 바로 그것이다. 채팅. 그것은 현실공간에서 못 다 품 생각의 표현들을 가상공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까. 사이버 공간속에서 자판을 두드려 말을 하면 상대방도 곧 호응을 해준다. 채팅에 대해 이경자(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은 형식이 없다"며 "젊은이들은 항상 경쟁사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상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통신언어라는 매체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에 채팅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팅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감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채팅은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에 익명성도 보장되어 있다. 이와같이 채팅은 많은 비밀의 배일에 싸여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채팅에서 많은 유행을 몰고 왔던 번개팅, 사이버공간에서 대화하는 상대를 실제 본다는 이유로 우리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통신언어 속에서 낯과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해 만나지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단지 서로의 심심했던 시간들을 채워주는 것 뿐이다. 그러다가 서로가

맘에 들면 사귀기도 한다. 번개팅을 통해 결혼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팅언어 또한 재미있다. '에블바디 방가', '하2', '20000' 등 보편적인 언어습관에서 벗어난 말들이 통신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에블바디 방가'는 '모두들 반가워요'를 뜻하고 '하2'와 '20000'은 각각 'Hi'와 '이만'을 언어유희적으로 사용한 말이다. 대화방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기발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모르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따돌림을 받는다. 이는 빨리 대화하기 위해 말을 줄인 것도 있지만 표현을 재미있게 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듯 채팅 속에는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채팅언어의 경우 글로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 욕설이나 폭언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또한 익명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의 언어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비속어·외래어를 선호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을 하면서부터 가족과의 시간과 대화량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이것은 PC통신을 주로 가정에서 저녁시간에 하다보니 그만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대화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요즘 PC통신의 대화방서비스가 본격적인 음성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음성합성기능에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된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컴퓨터상에서 자신을 대신해 선택된 캐릭터를 통해 상대방의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듯 다양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채팅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을 헤엄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상상. 그런 어찌보면 잘못된 허상일 수도 있다. 채팅을 통한 사람사이의 공간대 형성을 위한 진지한 고민 속에 그 방향을 모색해 봐야한다.

〈김동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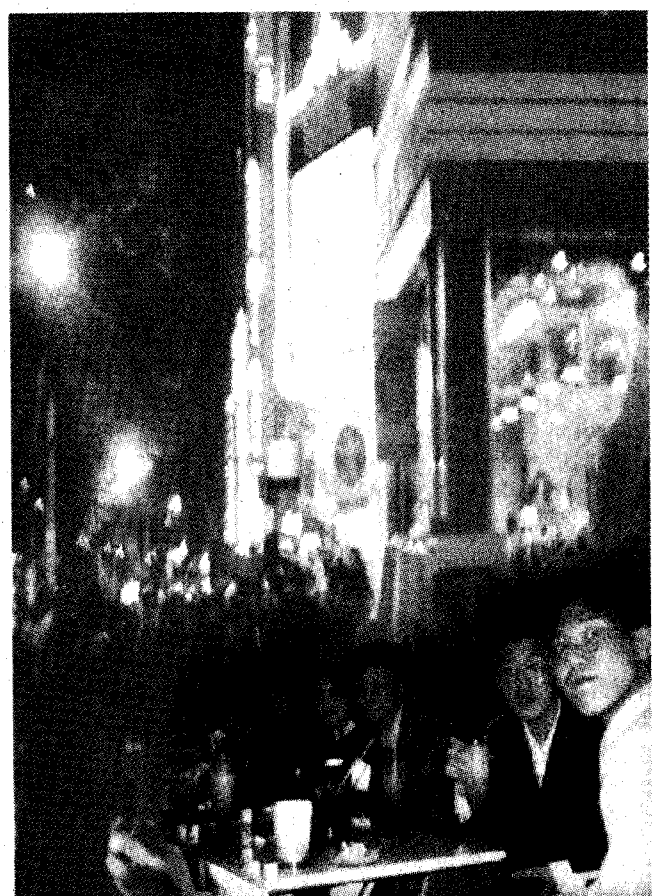
□ 르브-번개팅을 다녀와서

무의미한 익명속의 대화

낯선 이들과 보낸 시간들속에 무엇을 얻었는가? 사람을 사귀었다 하기에 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오늘날도 통신에선 번개팅을 하려는 이들의 방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이다.

늦은 밤 컴퓨터를 켜다. PC통신공간엔 한 밤중에도 불구하고 3천 4백여명 가까운 사용자들이 채팅접속중이다. W를 쳐서 통신방 제목과 대기자 명단을 본다. '내일 서울 강남역 타워레코드 앞 7시 번개팅사람' 17번 방에선 '번개팅 할 사람'을 모집 중이다. PC통신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번개팅에 톱 구어먹듯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통신자끼리 얼굴을 보는 만남을 가리켜 '번개팅'이라 한다. 번개팅은 특이한 만남형태를 띄고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직접 번개팅현장에 나가보았다. 가위춤방장(22세, 남, 대학생), PANG(21세, 여, 대학생), 이클립스(22세, 여, 대학생) 필자를 포함하여 2대 2의 번개팅 약속이 채팅을 통해 잡혔다. 번개팅을 주선하는 방장은 번개경력 34번의 배대방이라고. 오후 7시 강남역 타워레코드앞 PANG은 검은색 외투에 빨간 가방을, 이클립스는 긴 머리에 초록색 가디건을 입었다고 한다. 여기저기 긴 머리를 한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이클립스 아니세요?'라고 물어본다. 10분이 지난후야 이클립스를 찾았다. 채팅에선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만나고보니 서먹서먹함이 앞선다. 둘이 별 말 없이 서있기를 10분, 가위춤방장과 PANG이 나타났다.

가까운 출판복음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끝난 후 소주방으로 들어갔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한 후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신 만득이 씨리즈 등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 바탕 웃기도 하고 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PANG과 이클립스는 수줍은 미소를 짓기도 한다. 방장처럼 계속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이리저리 움직여야만 주목을 받는다. 별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하면 아무도 시선조차 주지않는다. 이클립스가 애인이 없다고 하니 가위춤방장은 '난 어때?'하며 적극적인 의사를 비친다. PANG과 이클립스가 잠깐 화장실을 가고 방장과 단 둘이 남았다. 좀 전만 해도 다 같이 떠들어대며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방장은 이클립스가 돌아올때 까지 말한마디 없이 담배만 피워댄다.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본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지금 이들과 같이있으려면 현재의 만남만이 중요하다. 소주방에서 나오니 시간이 늦어 PANG이 가봐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번개팅의 막이 내려졌다. 이번 번개팅 재미있었는지 아무도 다음 만남의 약속을 말하지 않았다. 연락처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위춤방장은 둘을 바래다 준다며 따라간다. 낯선 이들과 보낸 시간들속에 무엇을 얻었는가? 사람을 사귀었다 하기에 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가위춤방장은 그나마 여자친구를 얻었는지 모른다. 별 말 없이 평범했던 이들에게 돌아온 재미있는 시간 뿐이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남을 하나의 '도구'로 썼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번 번개팅이 모든 번개팅의 모습을 대변해주지



사진은 번개 장소로 유명한 강남역 일대와 X-File동우회원들의 번개 모습

못하겠지만 하나의 단편을 보여준것이라 생각이 든다. 오늘 밤도 PC통신에선 번개팅을 하려는 이들이 만든 통신방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이다.

〈김동욱 기자〉